

6월 2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2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기술주 강세.. 다우는 0.2%↓	24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가 장후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발표 직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전환했음. 다만, 오라클이 주도한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900선을 이틀만에 회복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3.05포인트(0.28%) 떨어진 8,299.8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42포인트(1.55%) 상승한 1,792.3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5.84포인트(0.65%) 오른 900.94를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장후반 FOMC 발표문이 나오기전에는 강세흐름을 유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데다 5월 내구재 주문이 깜짝 증가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 그러나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문이 확인된 직후 뉴욕증시는 상승폭을 줄였고, 다우 지수는 소폭이나마 약세로 돌아섰음. 연준이 FOMC 발표문에서 "경기위축이 완화됐다"고 평가한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예외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점이 부담이 되었음.
S&P 500 지수 `골든 크로스 발생`	S&P 500 지수의 중기 추세선인 50일 이동평균선(50일간의 지수를 평균해 이은 선)이 장기 추세선인 200일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음. 통상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엔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기추세선이 중장기 추세선을 끌고 올라가는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게 됨. S&P 500 지수의 경우엔 중·장기 추세선간 골든크로스는 지난 2007년 12월 이후 처음임. 이에 따라 S&P 500지수의 중장기 추세선의 골든크로스는 기술적으로 강세장 내지 추가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음.
美 5월 내구재주문 1.8%↑..`깜짝` 증가세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보다 1.8% 증가했음. 자동차관련 주문이 부진했지만 상업용 항공기와 기계류, 컴퓨터 주문이 호조를 보이며 5월 내구재 주문이 증가세를 기록했음. 특히 5월 내구재 주문은 당초 감소세가 예상됐기 때문에 예상밖의 결과임.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9%였음. 이로써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최근 4개월중 3개월간 상승세를 기록, 미국의 리세션 완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목	주요 내용
美 5월 신규주택판매는 0.6%↓..예상밖 감소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신규주택판매는 연율 34만 4,000채(수정치)를 기록했던 전월에 비해 0.6% 감소한 연율 34만 2,000채로 집계되었음. 5월 신규주택판매는 당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치를 빗나갔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36만채가 예상되었음.
국제유가, 휘발유 재고 영향에 하락..배럴당 68달러	국제유가가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소식으로 소폭 하락, 배럴당 68달러선에서 마감했음.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57센트(0.8%) 소폭 떨어진 68.67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ECB "부양할 뎀 확실하게"..기록적 자금 투입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후퇴와 맞서기 위해 유로존 자금시장에 4420억유로(6,22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투입했음. 지원 규모로는 ECB의 자금시장 지원 가운데 최대 규모.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CB는 `남몰래 부양`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의 전례없는 조치에서 1100개이상의 은행에 현 벤치마크 금리인 1%에, 12개월간 총 4,422억유로의 자금을 대출했음.
中 WTO 제소 불구 수출정책 옹호	신화통신이 인용한 익명의 상무부 관계자는 보크사이트, 코크스, 마그네슘, 아연 등에 적용되는 수출 제한 정책을 방어하면서 "중국의 수출 정책은 WTO의 규정에 일치한다"고 밝혔음. 그는 "수출 제한 정책은 환경과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미국과 EU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중국 기업들에게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OECD "韓, 올 -2.2% 내년 3.5%..가장 빠른 회복	OECD는 24일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난 1분기 확장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 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증가하는 등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음.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기업 및 소비심리 개선과 재고조정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지만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2.2%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 올해 4분기 성장률은 2.6%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이 3.9%까지 상승, 연간으로는 OECD국가중 최고인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건설사 상반기 해외수주 `반토막`..117억불	2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24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17억4,525만달러로 전년동기 251억7,682만달러보다 134억3,157만달러, 54% 줄었음.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19억6,075만달러로 수주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SK건설 11억4,671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 10억6,299만달러 등이 10억달러 이상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